

<악당의 무게이 악당에게>

책속 인물에게 보내는
한글 손편지

(부산)사직중학교 5학년 4반 이새벽

악당아,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쓴 이새벽 아고 해.
사실 나는 비록 듣개이지만, 하늘나라에 가 있어 내가 쓴 글
을 이해할 수 있지도 몰라. 내가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날리면
만약에 너에게 도착한다 해도 나의 마음만 이해해도
충분해.

사실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. 내가 악
당같은 듣개가 되면 어땠는지, 나를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어떤
말을 해줘야 할지 등등 떠올려 보기도 했어. 그렇게 계속 생각
을 하다가 갑자기 뒤목을 탁! 치는 어떤 것이 떠올랐어. 나는
포악하기로 소문이 난 듣개였어.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왜 공격
했는지, 무엇을 위해서 또는 무엇 때문에 공격했는지 생각하지 않
고 오직 인명피해로 계속 증오하고 총까지 쏘았지. 나는 이때 생각
이 떠올랐어. 나는 나쁜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? 나는 전쟁
같아. 너를 계속 싫어하고 잡고 싶다고 생각한 황 사장의 현상
을 봐 다른 사람들 까지도 나를 잡고 싶어하는 것처럼 나쁜
생각은 전쟁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퍼지는 걸 같아

지금은 귀엽게 생긴 강아지를 많이 키워. 미안하지만 버려진 듣개
들은 잘 키워려 하지 않아.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생각
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어. 단순히 눈과 마음만 행복
해지는 것이 아닌 너처럼 색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의
마음을 풀어준 고장을 쌓는 게가 좋은 것 같아.

악당아 하늘나라에서는 사랑을 듬뿍 받는 반려견이 되고
싶겠지만 나는 세상을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개가 되
고 싶어.

즐거워. 나는 너를 계속 응원할게 안녕!